

삼성 46개·LG 28개... 한국 기업, CES서 혁신상 휩쓸었다

CES 2023서도 '한류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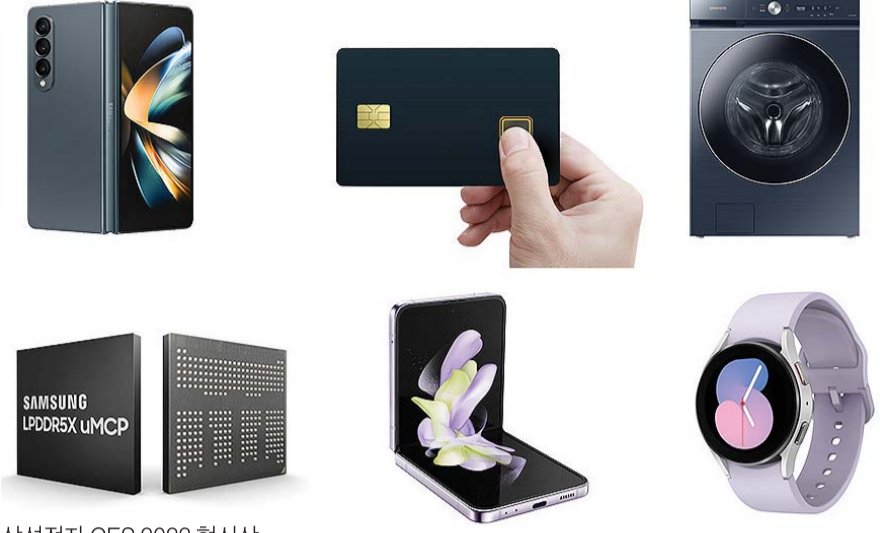
삼성전자 역대 최다 수상 기록 TV 신제품 12년 연속 혁신상 받아 LG전자 공청기·무선청소기 등 생활가전 비롯 다양한 분야 성과

한국 기업들이 CES2023에서도 혁신상을 휩쓸며 기술 한류 열풍을 이어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국내 업체들이 CES 혁신상을 대거 수상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내렸다.

CES 혁신상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행사에 앞서 혁신 제품을 미리 선정해 수상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46개를 수상하며 CES2020에 이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최고 혁신상에도 2023년형 TV 신제품이 12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도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 최초로 지문 센서와 보안칩 및 프로세서 통합한 지문인증IC도 함께다.

생활 가전 부문에서도 역대 최다인



삼성전자 CES 2023 혁신상.

10개 혁신상을 받았다. 비스포크 가전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영상디스플레이 18개와 모바일 11개, 반도체 7개 등 전 사업 영역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도 28개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공기청정기와 무선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두

루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최고 혁신상만 2개, 총 12개 혁신상을 받으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넘어섰다. 2013년 첫 출시 이후 11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며 프리미엄 TV 위상을 굳건히 했다. LG 올레드 플렉스는 게이밍 부문 최고 혁신상과 영상디스플레이 부문 혁신상을 받으며 올레드 TV의 품팩터 혁신과 높은 화질을 증명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과 SKIET는 그룹 처음으로 최고혁신상을 차지했다. 각각 전기차를 한번에 400km 이상 주행 가능케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SF 배터리'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유리를 대체하는 신소재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FCW)'가 주인공이다.

SK텔레콤도 인공지능(AI) 기반 동물 엑스레이(X-ray) 영상 진단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 '설리번 A'로 각각 디지털건강(Digital health)과 소프트웨어 & 모바일 앱(Software & Mobile Apps) 분야에서 CES 혁신상 영예를 안았다.

SK에코플랜트도 폐기물 배출과 운송, 처리까지 생애주기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솔루션 '웨이블'로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SK바이오팜은 국제 제약사 최초로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로 글래스'와 '제로 와이어드'로 혁신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처음 CES2023에 데뷔한 현대중공업그룹도 9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선박

AI자율운항 기반 LNG 연료공급 관리 시스템(Hi-GAS+)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시스템(Hi-EPS) ▲산업단지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친환경 고압차단기(GREENTRIC ECO 170kV GIS) ▲건설현장 안전관리 플랫폼(XiteSafety) ▲모빌리티 솔라 에너지솔루션(HYUNDAI Mobility Solar)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NeuBoat) 등 총 7개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도 AI 기반 메이크업 제조시스템 톤워크와 맞춤형 스킨케어 화장품 제조기 코스메칩으로 4년 연속 혁신상을 이어갔다.

그밖에 국내 스타트업 34개사도 CES 혁신상을 48개나 수상했다. 지난해보다 5개사가 늘었다. 헬스케어 21개, 모바일 앱 10개, 디지털 헬스가 10개 등이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C랩에서 분사한 망고슬레브 에스티와 C랩 아웃사이드 알고케어 AI 영양관리 솔루션 등도 포함됐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화학, 자체기술 메탄전식 개질설비 구축

이산화탄소·메탄으로 플라스틱 제조 2050 넷제로 달성 기반 마련 하기로

LG화학은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부생가스인 메탄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메탄전식개질(DRM) 설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의 원료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탄소저감 설비를 구축, 2050 넷제로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에 따르면 'DRM'은 CCU(이산화탄소·포집·활용) 기술의 한 종류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저감하고 주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탄소저감 설비다.

자체 기술 기반의 공정과 촉매까지 적용으로 DRM 설비를 상업화하는 것



LG화학 충남대산 공장 전경.

/LG화학

은 LG화학이 국내 최하다.

LG화학은 이번 DRM 공장을 외부 라이선스 기술이 아닌 자체 기술로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전환에 핵심이 되는 촉매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DRM은 운전 시 촉매 성능

이 빠르게 낮아지는 문제로 상업화가 어려웠지만, LG화학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공정과 촉매 기술을 적용하여 촉매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중, 해운업계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방법론 표준협회서 신뢰성 획득

삼성중공업이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통해 글로벌 해운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다고 밝혔다.

17일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계 최초로 'Scope 3 선박 운항 단계 탄소감축 방법론'을 개발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했다"며 "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탄소 감축 기여량은 한국품질재단의 검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코프 3(Scope 3) 선박 운항 단계 탄소감축 방법론'은 고객에게 인도한

친환경 선박이 탄소 감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산정하는 방법이다. 삼성중공업은 각종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설계·건조한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값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EEDI 허용값 보다 향상된 정도를 기준으로 탄소 감축 기여량을 산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선박 22척의 생애주기(평균 24년) 동안 탄소 감축 기여량은 총 1058만톤(tCO₂-eq)으로, 이는 약 595만대의 승용차가 1년 동안 주행하면서 배출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규모다. /허정윤 기자

금호석유화학 업무용차 무공해 전환 예고

금호석유화학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가입과 전 사업장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무공해차 전환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소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는 모든 차량을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차량 중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의 비중을 높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허정윤 기자

LS전선, 해저케이블 글로벌 강자 자리매김

올 북미·유럽서 수천억 수주 성공

LS전선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 대규모 성과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증가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신시장도 본격 성장하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올해 북미와 유럽에서 수천억 원대 해저 케이블 수주에 성공, 글로벌 케이블 강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10월 계약을 체결한 영국 북해 보레이스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LS전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총 24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전선업체가 유럽에서 수주한 역대 최대 계약이다. 얇은 수심, 양질의 풍질을 갖춘 북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사업이 활발한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크다.

미국 시장에서도 대규모 성과가 기대된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IRA가 시행됐지



LS전선 통해 공장에서 생산된 해저 케이블이 포설선에 선적되고 있다.

만, 시장 규모에 비해 미국산 해저 케이블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적도 상승세다. LS전선 올 3분기 매출액은 1조73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해저 케이블 등 주력 사업의 성장세가 매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 증가에 대비, 관련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KT서브마린 지분의 16%를 인수해 KT에 이어 2대 주주가 되었다. 업계에서는 LS전선이 내년엔 콜옵션을 행사해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현대모비스 "손짓으로 IVI 쉽게 활용해요"

세계최초 '퀵메뉴 셀렉션' 개발

현대모비스가 손짓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을 더 쉽게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퀵메뉴 셀렉션'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퀵메뉴 셀렉션은 근접인식반응형팝업 디스플레이로, '메뉴 프리 인포메이션'으로도 불린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근접 센서를 적

용해 터치스크린 중복 조작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사용자가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접근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세부 메뉴를 자동으로 팝업해준다. 손을 대는 것만으로 근접 센서가 반응, 메뉴를 넘기는 제스처만으로 원하는 메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적외선(IR) 센서를 차량에 위치 센싱에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